



완도교육지원청, 꿈드림 대학진로캠프

완도교육지원청은 최근 중학교 3학년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과의 그룹멘토링, 캠퍼스투어, 학과체험 등 '꿈드림 대학진로캠프'를 진행했다.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맞아 최근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열었다. 월출산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 '다문화가족 체험 한마당'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최근 관내 만 3~5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24가족, 일반가족 21가족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분원 무지개 마을, 호기심 마을, 강의실에서 '함께하면 행복해요 다문화가족 체험 한마당'을 가졌다.



안종모 조선대 치과대학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안종모 조선대 치과대학장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안 학장은 국내외 진료봉사와 구강보건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국민구강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주간 운영

지한초교, '평화통일부스 체험' 행사 등 개최

지한초등학교는 최근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예술단 초청 공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통일교육연구회 인 지한초에서 운영한 '통일교육주간'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한초는 북한예술단과의 만남, 통일 주제 프로젝트 수업,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평화통일 부스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평화통일 부스 체험에선 '통일이 꽃(꽃)이다'

라는 주제로 통일기원나무, 통일키링만들기, 통일보물찾기, 통일미술관 등 16개의 평화통일 체험부스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날 공연을 보고 "북한이탈주민이 전해주는 북한의 모습은 뉴스나 인터넷보다 훨씬 생생해요", "분단으로 인해 상처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통일이 되어 해요" 등 통일을 염원하며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현했다.

/황애란 기자

“나의 성장 발판 중소기업 매력적”

지역농산물 활용한 식품개발 성공 광주전남 중기청 우수근로자 포상

■ 현대에프엔비 박정진 팀장

“중소기업은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지역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보조식품 개발에 성공, 지역농산물활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전남 중기청 우수근로자 포상을 수상해 화제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농업회사법인 현대에프엔비 박정진 팀장(37)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15년 농업회사법인 현대에프엔비에 입사했다. 이후 3년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하며 기업성장에 노력해왔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비전공 분야에서 빛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박 팀장의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으로 식품개발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

그렇던 그가 식품개발에까지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열정 때문이었다.

박 팀장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기업인이 농산물을 개발해 농사 소득에 기여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취업을 하게 됐다”면서 “우리기업은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다 보니 식품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텔조리학과 등 교수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과정들이 식품개발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인 구상이 떠올라 교수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교수의 자문 등을 토대로 제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너무 뿌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품화 것은 영암 고구마로 만든 말랭이, 남원 유기농 채소로 만든 티백 제품 등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2억 5,000만원의 매출을 찍었다.

최근에는 곡물을 활용한 다이어트

식품 개발에도 성공했다. 미생물 곡물 배양 기술을 통해 기능성 효소와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개발 한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상품화 전이지만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기도 하다.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빈번한 가운데 목목히 기업성장을 이끌어온 박 팀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다른 매력을 꼽았다.

박 팀장은 “대기업은 월급을 많이 받고 복지가 좋다는 점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으로 다가 올 것이다”면서 “하지만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회사에서 배운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우리회사의 비전이다”며 “그 비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농협 광주영업본부 ‘또 하나의 마을’ 교류

분랑동 감동마을 양파 재배농가 일손돕기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김귀남)는 최근 광산구 분랑동에 위치한 감동마을을 방문해 양파와 감자 수확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와 감동마을은 2016년 7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식을 체결 후 마을 명예주민으로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왔다. 영업본부 직원들은 틈틈이 마을을 방문해 환경정화, 제조작업, 농산물 수확 등을 함께하며 따뜻한 정을 가꾸어 왔다.

감동마을 정금숙 농업인은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마을에 매년 찾아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농협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귀남 영업본부장은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갈수록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작은 도움을 줄수 있어 보람되며, 일손돕기에 함께 참여해준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란 기업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동장을 시장이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교감과 인정을 나누며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혁신의 새로운 모형을 창조하고자 농협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운동이다. /서미애 기자



호남대-상하이대 ‘2+2복수학위제’ 협력강화

호남대학교는 중국상하이대학교와 실시하고 있는 ‘2+2 복수학위제’ 협력 강화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상하이대학교 아오시밍 국제교류대학장 등 관계자들은 최근 호남대를 방문해 복수학위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오시밍 상하이대학교 국제교류대학장과 상하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진지 총괄은 서강석 호남대학교 총장을 예방하고 손완이 호남대 국제교류본부장, 이정립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오시밍 학장은 호남대학교의 각종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호남대 공자학원과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 등을 방문하고 중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호남대는 지난해 4월 24일 중국상하이대학교와 ‘2+2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호남대 중국어학과 신입생이 1~2학년 때는 호남대에서 공부하고 3~4학년은 중국 상하이대학교에서 수학(유학)해 졸업과 동시에 호남대와 상하이대,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국어학과 2018학년도 입학생 35명은 1·2학년 동안 중국어·인성·직무와 관련된 기초과정을 공부하고 HSK(중국어한어수평고시) 4급을 취득한 뒤, 중국상하이대학교에서 3·4학년 동안 고급 중국어과정 및 실무 교육을 받는다.

/황애란 기자



여수우체국, ‘우체국 작은대학’ 개소

여수우체국(국장 김향란)은 최근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우체국 작은대학’ 개소식을 갖고 8월까지 10주 동안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100배 활용법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재능기부 봉사자인 김강순 강사와 수강생, 우체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체국 작은대학’ 현판 제막식,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향란 여수우체국장은 “우체국 여유공간을 활용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교육과 문화 소통공간을 제공해 기쁘다”며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다 쉽게 가족,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스트레스 마음껏 푸소”

광주용두중 학생들 강진서 농촌 힐링 체험

광주용두중학교 학생 34명과 인솔교사는 최근 강진군 농촌 힐링 프로그램인 ‘푸소 체험’에 참여했다.

푸소(FU-SO)는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감성은 키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는 풀어내라는 뜻이다. 푸소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따뜻한 농촌의 정서와 감성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학생들은 푸소 버스를 타고 가우도에 도착해 함께해길 트레킹과 짚트랙을 체험했다. 고려청자 박물관, 다산초당, 법원사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강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배웠다. 학생들은 푸소 체험 농가에서 농사일을 돕고, 농산물을 수확하며 농촌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황애란 기자